제 582 호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2007년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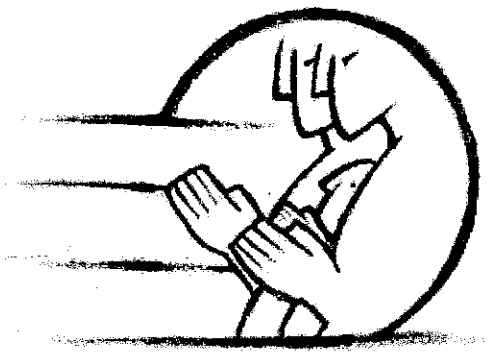
한마음 주보

Hanmaum (one-in-Christ) Korean Catholic Church
4812 W,Napoleon Ave. Metairie LA 70001
본당신부 : 박준혁 프란체스코 (504)888.2366/782.4474
회 장 : 송명훈 요셉 (504)368.0362/236.4202
성당 : (504) 888.8772 E-mail : franco4369@hanmail.net
Web page : www.geocities.com/hanmaumcatholic

✝ 나누는 기쁨 ✝

가 정

가난하지만 어머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조촐하지만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 알차게 뿌리박고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터전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들의 요람.



한광구 요셉·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화가

✝ 오늘의 미사 ✝

제 1 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2-6,12-14
화 답 송	⊙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은 모두 행복하여라.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2-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15,19-23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어울리셨도다.

'떡값' 은 없다!

한 변호사가 자신이 속했던 재벌 그룹의 검찰 로비 의혹을 폭로한 후 떡값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뇌물과 떡값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현재 대법원은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기준을 대략 3천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이면 뇌물이고, 그 이하는 떡값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떡도 있나요? 드셔 본 적은 있으세요?

떡값이란 본래 일본의 '모찌다이' (餠代)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떡값과 모찌다이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떡값은 업자나 아랫사람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돈이지만, 모찌다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하사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파벌정치의 국가답게 파벌 우두머리가 자기 파 의원에게 모찌다이를 주고 있고 매스컴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보도하곤 합니다. 결국 떡값이라는 말은 일본의 모찌다이에서 유래됐지만, 하사금이 아니라 뇌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뇌물과 관련된 일본말은 이밖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쓰곤 했습니다. 그 하나가 '사바사바' 입니다. 사바는 생선 고등어를 지칭합니다. 고등어 두 마리를 바치면 웬만한 일은 처리되었다는 뜻에서 '사바사바' 란 말이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고등어가 옛날 얼마만큼 비싼 생선이었는지 알 길 없습니다만, 사바사바가 뇌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뇌물을 뜻하는 '와이로' (賄賂)라는 말이 따로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바쳐야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대개 없는 사람이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대게 가진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사람은 더욱 많이 갖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계 각국의 부패를 감시하는 한 NGO 단체는 선진국도 없는 사람에게 뇌물을 많이 요구하고 사법과 경찰이 부패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일이 아닌가 봅니다.

떡값이 진정으로 아랫사람의 명절을 걱정해서 내려 주는 하사금이라면 금지하지 말고 오히려 권장할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뇌물이라면, 이제는 떡값이라며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뇌물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어느 사회에도 뇌물이 있겠지만, 뇌물과 떡값을 구분하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지 못한 우리 사회가 문제입니다. 아니 차제에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몇 만원의 떡값을 주면 어떨까요?

본래 뇌물을 뜻하는 영어 '브라이브' (bribe)란 거지에게 베푸는 빵을 뜻한다고 합니다. 뇌물마저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복지' 이자 '사랑' 이었네요.

● 박병식 유스티노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연약할 때 자기를 알고 힘을 기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과 정
사리를 판단할 때 고집으로 인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사심이 없는 판단을 하며
또한 평탄하고 안이한 길만이
삶의 전부라 생각치 말게 하고
고난에 직면할 때 분투 노력할 줄 알며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직한 패배에 부끄러워 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하여 주소서.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이 설정하되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에 더하여 삶을 엄숙하게 살아감은 물론
유머를 알고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내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좋은 글 중에서-

▶우리들의 정성◀

날 짜	봉헌금	2차헌금	교무금	합계
12월 23일	365불		1400불	1765불
12월 24일	593불	930불		1523불

날 짜	미사 참석	영성체
12월 23일	63명	41명
12월 24일	103명	68명

▶전례 봉사자◀

구 분	미사 해설	독 서	복 사
이번 주일	김 노엘	윤상진 스테파노 윤혜숙 유스틱나	하재성 다 니 엘 김동일 파비아노
12월 31일	김 바울리나	박병욱 스테파노 박영미 소 피 아	김동일 파비아노 윤상현 토 마 스
다음 주일	김 즈가리야	김치훈 바 오 로 김호영 바울리나	유하나 마 리 아 김은수 쥴 리 아

공지 사항

1.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오늘 만큼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12월 31일(월) 송년미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8시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8시 30분부터 마을대항 윷놀이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11시에 미사가 시작됩니다. 이 미사는 송년미사 겸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전례는 1월 1일 미사로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떡국 잔치도 함께 있겠습니다. 모든 신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1월 1일 미사는 없습니다.

3. 새로운 평협임원과 성모회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평 협

회 장 : 송명훈 요 셉
부회장 : 박병구 다미아노
총 무 : 손호덕 도미니꼬
재 무 : 김종국 알 벨 또
전 례 : 김재홍 노 엘
봉 사 : 하남용 모 세
대 외 : 성은제 필 립 보

성모회 임원

회 장 : 유연미 가리디나
부회장 : 김동순 프란체스카
총 무 : 하원영 베로니카
재 무 : 김정화 막달레나

마을 족장

회망 마을 : 조갑희 카타리나
평화 마을 :
사랑 마을 : 유재석 요한보스꼬
은총 마을 : 함선옥 율리안나

그 동안 수고해주신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고, 또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구성된 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4. 1월부터 마을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보대에 마을 모임 양식이 있사오니 가져가시어 사용하시고, 1월 7-11일/ 1월 27-31일까지는 주임신부가 없으니 날짜 잡으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1월 6일)에 교무금 책정이 있겠습니다. 지난 교무금은 완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성의껏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1월 음식준비는 희망의 마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달 2, 4주에 음식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1월 1일 저녁에 신, 구임원 모임 및 식사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서묵상〉

빛의 증언자 세례자 요한

요한 1,6-8. 19-28

세례자 요한의 출현으로 기쁜 소식의 공적인 선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세주의 오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파견되었습니다.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그의 말 속에서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줄 분, 곧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질문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엄밀히 답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의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희랍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 가문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예언자가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실려 올라갔다고 믿고 있었기에 주님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에 미리 파견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또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하고 묻습니다. 요한은 종말론적인 예언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러한 예언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바로 그 예언자가 아닌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알려야 할 종이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닦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꾼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그 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능력을 예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는 자신을 보내신 하느님의 목적과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똑바로 깨닫고 진리를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참다운 예언자였습니다.

나눔>

1. 우리의 삶 안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2. 우리가 가볍게 취급했던 이웃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마을 모임

천주교 한마음 성당
2008년 1월

* 마을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등

1. 시작 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2. 묵주 기도 봉헌: 족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3. 성경 읽기: 요한 1,6-8. 19-28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공동기도 봉헌: 가정을 위한기도

6. 기타: * 건의사항
   * 다음 모임 결정

7.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8. 마침 성가: 236번(사랑하올 어머니)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